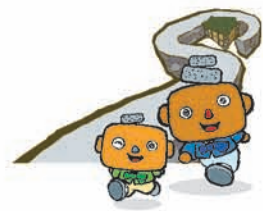


- ◆ 화합 · 협력하는 군민
- ◆ 친 자연적인 생태환경
- ◆ 생활복지와 민생경제
- ◆ 품격 높은 문화예술



- ◆ 군 조 : 비 들 기
- ◆ 군 목 : 소 나 무
- ◆ 군 화 : 동 백 꽃

고창 오거리 당산제 및 민속큰잔치...전통문화 즐기며 화합 “올해도 마을의 무사안녕 비읍니다”



정월대보름을 맞아 고창군에서 ‘제 35회 고창오거리당산제’와 ‘제25회 민속큰잔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고창오거리당산제와 민속큰잔치는 지난 2월 22일 고창읍 중앙당산 일대와 고창읍성 주변 야외공연장에서 주민 등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당산놀이는 문화의전당 앞에서 출발해 고창읍사무소와 군청을 지나

신사거리를 거쳐 중앙당산까지 오거리 당산제 줄사위(시가행진)를 한 뒤 중앙당산에서 당산제를 지내고, 연등놀이, 줄에맞이, 줄다리기, 소망 달집 태우기 순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중리(중앙) 당산 주변에서는 고창읍민들이 각 마을별로 참여한 가운데 율놀이, 투호놀이, 제기차기, 줄다리기 등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이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정월대보름 고창오거리 당산제·민속큰잔치 제전위원회(위원장 고석원)가 주최하고, 고창오거리당산제보존회, 고창향토민속보존회, 고창읍이장단협의회가 주관, 고창군·고창군의회·고창문화원, 한빛원자력이 후원했으며 기념식, 거리행진, 당산제, 당산놀이, 대보름 민속놀이 등으로 다

채롭게 진행됐다. 고석원 위원장은 “앞으로도 풍수신앙과 마을공동체신앙, 민속놀이가 어우러진 향토문화유산이자 지역축제인 고창오거리당산제와 민속큰잔치를 더욱 계승하고 발전시켜 지역주민의 화합을 다지면서 향토문화 보존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본격 추진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발전·지원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관리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네스코로부터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고창생물권보전관리센터’를 마련해 주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해 11월부터 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했으며 올해 5월 마무리 후 2017년 완공될 예정이다. 3월 2일 군청 상황실에서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고창생물권보전관리센터’가 건립되면 생물권보전지역 내의 생태환경, 역사문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면서 협력과 지원,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컨트롤타워, 주민교육 및 리더양성, 생물권보전지역 상품 마케팅 등 보전·발전·지원기능이 더욱 원활하게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창군에는 현재 운곡 탐사르습지 에코존 조성, 동림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 국가지질공원 인증,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생태관광산업이 연계 추진되고 있다.

명품 농업 육성을 위한 집중 교육의 기회 고창농촌개발대학, 지역농업발전 ‘견인차’ 육성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농업발전을 이끌 농업리더를 양성하는 고창농촌개발대학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 올해 고창농촌개발대학은 3월 1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생 등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고창농촌개발대학은 6개의 정규과정을 개설하고 교육 참여 접수를 받은 결과 당초 모집인원인 258명을 훌쩍 넘는 332명이 접수하

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 이례적으로 면접과정을 추가해 263명의 교육생을 선발했다. 교육과정은 △치유농업과(51명) △스마트마케팅과(40명) △농촌체험관광과(50명) △친환경유기농과(40명) △미래농업과(30명) △배리가공과(52명)가 개설됐다. 교육은 오는 11월 24일까지 총 20회 100시간 이상 진행되며 과정별 전문교육, 선진농장 현장견학, 실습·토론, 워크숍, 해외연수 등 차별화된 교육을 진행해 실질적인 소득창출 방안과 동기부여를 제공하게 된다. 고창농촌개발 대학장은 “수준 높은 강의와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육생이 늘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리 및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돈버는 농업인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르신들의 지혜는 사회의 큰 보물”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 정기총회



제45회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3월 16일 고창 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정기총회는 정기수 지회장과 기관단체장, 각 지회 임원 및 경로당 회장과 회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과 더불어 투철한 사명감으로 노인발전에 기여한 신림면 신림경로당 유재규 회장이 대한노인회고창군 지회장상을, 무장면 석수경로당 류우석 회장이 고창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 후에는 2016년도 의안처리와 지도자 교육이 이뤄졌다. 고창군지회 정기수 회장은 “지역 내 573개 경로당 회원을 포함 1만6000여명의 회원이 함께 힘을 모아 고창발전에 기여하고 존경받는 노인상 구현과 노인 권익신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자”고 말했다. 고창군수는 “지역발전에 헌신한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는 우리 사회의 큰 보물”이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읍 동리로, 지중화와 안전한 보행환경 마련된다 전통시장 거리환경 개선 기대

고창읍 고창읍 동리로 주변에 지중화와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된다.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지중화는 고창군과 한전전북지역본부, 전북도시가스, 5개 통신사가 사업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 당초에는 동리로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만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주변 상가와 주민들이 도시미관 개선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중화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사가 함께 이뤄지기를 원한다는 의견에 따라 지중화와 안전한 보

행환경 조성이 함께 진행된다. 조성이 완료되면 전통시장 주변에 쾌적한 도로환경이 만들어져 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사기간 동안에는 구간별 교통통제가 이뤄지고 버스도 동리로를 통행할 수 없어 전통시장 인근 지역에서 하차해야 하고 차량의 경우 전면 남로나 시장 뒷길로 우회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상가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미래 희망 100년을 위한 새로운 변화.
기쁜 봄을 맞이하며 고창군에서는
제45회민간여러분께 따뜻한 고창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매일 ‘고창군정소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및 주소변경은
고창군청 홈페이지로 전화주세요.

063-560-2327

한국인의본향 고창, 초록물결 청보리밭!

제13회 고창 청보리밭축제

2016. 4. 16(토)~5. 8(일) 23일간

※ 기념식 : 2016. 4. 16(토) 14:00 주행사장 특설무대

장소 :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장 일원

주최 : 고창군
주관 : 고창청보리밭축제위원회
후원 : 농협 고창군지부, 한수원(주)한빛원자력본부

시작된 본회의나 위원회가 산화되기 전까지 회의 중에 필요에 의하여 회의를 잠시 쉬게 되는데, 이것을 “정회”라 한다. 그리고 정회 선포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의장(위원장)은 회의의 시작함을 선포하는데 이를 “속개”라 한다.



“고창의 맛과 멋, 우리가 알려요!” 스마트 관광 홍보단 활동 시작

고창군의 주요 관광지를 전문적으로 취재하고 답사해 가장 고창답고, 가장 아름다운 고창의 모습을 널리 알리는 ‘스마트 관광 홍보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스마트 관광 홍보단’은 지난 2월 25일 군청 상형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발대식에서는 스마트 관광 홍보단에 대한 소개와 고창군 여행기자증을 수여하고 올해 활동방향과 답사일정에 대한 협의와 함께 질의응답시간이 마련됐다.

‘스마트 관광 홍보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여행에 관심 있는 관광 홍보단 19명이 선발됐으며, 앞으로 고창군 여행기자로 지역 내 주요 관광지와 맛집, 숙박 등에 대한 정보를 전문으로 취재하고 직접 답사

하여 SNS 및 블로그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고창군의 매력을 널리 알리게 된다.

스마트 관광 홍보단에게는 고창군 관광지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고 연말에 활동 우수자에 대한 표창도 실시된다.

군 관계자는 “청정한 자연생태환경과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고창군은 지역발전의 큰 동력이 되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인터넷과 SNS가 활성화된 시대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창군에 찾아와 편안하게 머무르고 갈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하여 생생한 소식과 정보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색 있는 관광자원 하나로! 고창 다섯꺼리(먹, 잘, 즐길, 볼, 살거리) 교육



고창군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들을 하나로 묶어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6차 산업의 우수사례를 만들기 위한 교육이 마련됐다.

교육은 지난 2월 2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군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먹고, 자고, 즐기고, 보고, 사는 다섯 가지의 ‘꺼리’를 연결해 상품화할

수 있도록 ‘고창 다섯꺼리 교육’의 입교식이 열렸다.

교육은 앞으로 매달 1회씩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역 활성화와 6차 산업 전략과 온·오프라인 마케팅 방법 등 월별 주제 강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수강생들은 고창의 다양한 자원을 소재로 농산물, 문화, 관광, 보존정신을 통합적으로 알고 느끼는 오감만족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자원을 발굴해 성공적인 농촌관광산업을 모색하게 된다.

고창군에는 수박, 복분자, 장어 등 풍부한 먹거리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청정 지역 속에서 쉴 수 있는 잘거리와 갯벌, 산사, 산악자전거 등 체험거리를 비롯해 선운산, 고인돌, 고창읍성, 청보리밭, 운곡습지 등 볼거리, 그리고 다양한 농특산물과 가공식품 등 살거리가 풍부해 6차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이 산재해 있다.

고창 특화 베리류산업 꽃 피운다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고려대 건강기능식품연구센터 협약



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양 기관은 고창의 특화생물자원인 복분자·오디 등 베리류에 대한 건강기능식품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베리류에 대한 성분분석,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사업 및 미래과학부 전 통문화연구개발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내용과 각종 대외 행사에 고창군 제품의 공동마케팅 추진에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연구소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베리류를 이용한 건강식품 개발이 탄력을 받아 복분자, 오디 등 베리류 산업이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가 베리류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고려대학교 건강기능식품연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이사들과 복분자연구회, 오디연구회, 고창식품기업 포럼회원을 비롯해 고려대 건강기능식품연구센터 관계자들은 지난 2월 25일 군청 상형실

연구소 이사장은 “베리류의 가격 불안정과 원물수급 등으로 베리류 산업이 어려움이 있지만 건강기능식품 개발 연구에 착수해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협약 이후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여 지역 농가와 관련 식품기업의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아산면 용계마을, 경관디자인 본격 추진 고창의 정취 느껴지는 아름다운 마을 조성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군, 그중 핵심지역이자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와 운곡습지가 있는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의 경관이 더욱 아름다워질 전망이다.

아산면 용계마을은 지난 해 전북도 경관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추진에 있어서는 마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관 전문가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 주민을 위한 쉼터와 편의공간, 돌담길 복원, 상징물 설치 등을 통해 누구에

게나 편안한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 주민들이 마을에서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생태관광 성공모델 지역이자 자연생태 우수마을인 용계마을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욱 다양한 마을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청정한 자연을 잘 지키면서 관광 경쟁력을 갖춘 지역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고창 3개 향교 ‘춘계 석전대제’ 옛 성현의 가르침 보존·전승



고창군 지역의 각 향교 대성전(고창, 무장, 흥덕)에서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우리의 전통 유교의식인 춘계 석전대제가 열렸다.

3월 16일 열린 석전대제는 지역 내 현관, 제관, 일반유림 등 각 향교마다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흥덕향교에서는 초헌(성내 윤병학), 아헌(흥덕 이상백), 종헌(신림 정갑진), 음복례, 철변두, 망요례의 순으로 제례를 거행했다.

석전대제(釋奠大祭)는 공자를 모신 사당인 문묘에서 지내는 제

사로서 ‘석전’이란 제(祭)를 놓고 제(幣)를 올린다는 데서 유래했다.

원래는 산천(山川), 묘사(廟祀), 선성(先聖: 공자 739년에 문선왕으로 추증됨) 등 여러 제향에서 이 석전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으나 다른 제사는 모두 사라지고 오직 문묘의 석전만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문묘 제향을 뜻한다.

고창의 향교(고창, 무장, 흥덕)에서는 공자를 중심으로 공자의 제자들과 우리나라의 유학자 설총, 최치원 등 총 27위의 위패를 모셔 놓고 봄, 가을로 매년 두 차례 2월과 8월 상정일(上丁:첫째 丁日)에 거행되고 있다.

각 향교에서는 석전대제를 비롯한 향교일요학교, 기로연 등 고창의 유교문화를 널리 홍보하고 전통문화 계승으로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주)청맥, 명품 잡곡 미국 식탁 올라 오색보리 등 한국의 맛 전한다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잡곡 4.5톤이 미국 LA 수출길에 올랐다.

보리, 한미 등 잡곡을 전문 가공·유통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청맥(대표 김재주)은 오색보리, 검정보리, 자수정보리, 찰현미 등 4종의 잡곡을 소포장하여 미국 소비자들에게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해 이달부터 수출을 시작했다.

이번 수출은 지난 해 12월 두 차례에 걸친 현지 마켓 테스트를 통



해 고창 명품잡곡에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아 정식으로 수출 계약이 이뤄졌다.

고창잡곡은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에서 재배되어, 윤기가 많고 영양가가 높은 게 특징이다.

수박의 고장 고창, 명성 이어간다 소비자 구매 욕구에 맞춘 ‘작은 수박’ 생산

고창군에서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구매욕구에 맞춘 소과종 수박 육성을 위한 수박 정식에 돌입했다.

고창군 지역 내 9ha 수박농가는 지난 달 말부터 소과종 흑과·호과무늬의 로얄블랙 수박 품종 시범재배를 위한 정식에 들어갔다.

고창에서는 이번 시범재배를 통해 점차 크기가 작은 수박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수박구매 패턴에 맞춰 크기가 작은 소과종 수박을 생산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소비자들은 1인 가족이 증가하고 핵가족화 되어 가고 있어 큰 수박보다는 점차 크기가 작은 수박을 선호하는 등 구매 패턴이 변화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등을 고려한 소과종 수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생산하게 될 소과종 로얄블랙은 2~6kg의 중량이며 당도 또한 14 브릭스 이상으로 과피는 얇지만 단단해 일반 소과종의 단점인 열과에도 강한 수박으로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고창 수박이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한 맞춤형 수박 생산으로 유통시장을 주도하고 수박 브랜드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소과종 수박 재배에 앞서 유통과 판로대책을 위하여 유통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유통을 마치고 출하시기에 맞춰 소비자 대상 홍보출시행사 등을 통해 집중적인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운전면허, 이제 여권과 함께 신청하세요 전북운전면허시험장과 협약...원스톱 발급 시행

고창군이 여권발급 신청 시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발급받는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서비스’를 3월 15일부터 제공하게 됐다.

고창군은 도로교통공단 전북운전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원스톱 발급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여권은 군청 민원실에서 발급 받은 후 국제운전면허증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아야 해서 민원인이 두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는 여권발급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국제운전

면허증 발급 신청이 가능해져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여권 접수와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유효한 여권을 지닌 민원인이 희망할 때도 군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7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를 신청 때는 사진 1매(반명함 또는 여권용 사진)와 국내운전면허증을 지참하면 되며 수수료는 8500원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체비바 협약에 가입한 95개국에서 사용 가능하다.

농업·농촌발전 이끌 젊은 인재 육성 후계농업경영인 38명 선정

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1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참여할 후계농 38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들은 3월 1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의 추진 요령과 윤자,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전교육에 참석했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38명에게는 총 70여억 원의 융자금과 함께 경영교육 및 컨설팅 등 성공적인 농업창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진다.

고창군에서는 1981년부터

1682명에 달하는 후계농을 선정·지원해왔다.

군 관계자는 “고령화된 농촌에 후계농업경영인이 미래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젊고 우수한 농업인력 확보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 받고 있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최대 2억원의 창업자금(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 지원된다.



한국인의 본향 고창! 초록물결 청보리밭!

제13회 고창 청보리밭축제,
4월 16일 개막

봄이다, 기승을 부리던 추위도 물러나고 부드러운 햇살이 눈과, 몸과, 마음을 깨운다.
얼었던 대지가 녹으면서 꽃들은 꽃망울을 터뜨리고, 대지에는 새싹이 솟아오른다.
가벼워진 옷차림만큼이나 가벼운 마음으로 봄을 만끽할 때다.

아름답고 청정한 자연생태환경 속에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고창군의 봄은 눈부신 초록빛이다. 30여만 평 광활한 대지 위에 손짓하는 고창 청보리밭은 마음까지 초록빛으로 물들일 듯 시원하다.

[우리나라 대표 경관농업 축제]

‘고창 청보리밭축제’가 오는 4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23일간 ‘한국인의 본향 고창! 초록물결 청보리밭!’이라는 주제로 고창 공음면 학원관광농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열세번째를 맞이하는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바쁜 일상에 쫓겨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에게 새봄을 맞아 보리밭의 상쾌함을 즐기며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축제로 매년 4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고창의 대표축제다.

탁 트인 공간에 초록 물결을 보는 이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곳마다 하나의 작품이 된다.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

4월 16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개막식은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소속 난타팀 ‘두드림’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고창농악전수관의 농악공연과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마련된다. 또한,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소속 ‘백로다회’의 차 나눔 행사도 부대행사로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보릿골 체험마당에서는 보리새싹으로 비누만들기와 염색체험 등 체험부스가 마련되며, 보리빵과 보리강정, 보리새싹 쿠키를 만들어 먹어보는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보리피리를 만들어 불어보며 옛 추억을 그리고 어릴적 감성으로 돌아가 보기도 하며, 널뛰기, 투호 등 전통놀이와 추억의 게임 등도 마련된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관광객들에게 전통한복 등 다양한 테마복 체험을 할 수 있는 대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어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축제장 내 유리온실을 리모델링해 전통농경유물 전시하고 전통농경생활을 시연하여 관광객들에게 전통농경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고창관광사진 전시를 통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아름다운 곳곳을 선보이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추억 속 힐링의 시간]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농업을 식량산업으로만 생각했던 사고를 획기적으로 바꾼 우리나라 경관농업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잡았다.

고창의 청정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지역 향토 산업과 연계한 녹색산업형 축제로 1차 산업인 농업을 관광산업까지 확대시켜 농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계기를 가져와 180여억원의 경제적 효과도 창출하고 있다.

봄 냄새 물씬 풍기는 보리밭에서 어른들은 옛 향수를 되새기고, 아이들은 새로운 추억을 쌓으며 일상에서의 피로를 날려버리고 생기 넘치는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많은 고창, 청보리밭 축제에서 푸르른 아름다움 속으로 빠져보자!

오는길 : 고창군 공음면 학원농장길 158-6
(내비게이션에 고창군 공음면 ‘선동초등학교’ 검색)
문 의 : 063-562-9897
홈페이지 <http://chungbori.gochang.go.kr>

고창군-고창군선관위 업무 협약 공정한 선거 업무 추진 협약



고창군과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깨끗한 선거업무 협약식’은 3월 7일 군청에서 고창군수와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이종우 사무국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원의 줄서기, 편가르기, 공무원의 선거관여, 선심성 예산집행 등 불법 선거운동 방지와 선거 중립의 의무를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또 협약을 계기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어느 때 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자치행정과 (063-560-2313) 또는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063-564-258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여성 일자리 창출 확산 ‘팔전어’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 체결

고창군이 여성일자리 창출과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고창군과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3월 15일 여성회관에서 지역 내 9개 기업체와 ‘여성친화일촌기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처 확보와 사회진출영역 확대를 위해 기업체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체가 여성인력을 적극 채용하도록 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및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이앤지푸드, 사임당푸드(영), 아이보리(영), ㈜풍성식품, ㈜서운푸드, ㈜삼보죽염, 농업회사법인 청보리(주), 농업회사법인

청맥(주), 고창읍내 휴먼시아아파트 등 여성인력채용과 여성근로자의 복지에 관심이 있는 9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 업체들에게는 앞으로 취업설계사의 전담기업 관리를 통해 구인지원과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강의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협약식에 이어서는 여성친화 및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지역 내 15개 기업체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공용센터의 일자리 지원사업 설명회가 열렸으며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네트워킹 구축 방안 등을 협의했다.

공연안내 『이화우 흠날릴 제』



작품줄거리

황진이와 곧잘 비교되는 조선중기 기생 여류시인 매창(1573~1610). 시인이며 유학자인 유취경을 정인으로 두고 평생 절개를 지키며 살았지만 몇 차례 만나지도 못했던 그녀의 외로움과 한은 그녀의 시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봄과 가을, 부안과 서울, 그 아말로 시공을 오락가락하던 ‘천리의 외로운 꿈’이 사백년이 지난 오늘에도 배꽃으로 흠날리고 있다.

장면구성 (제3막12장)

프로로그

〈제1막〉 1장. 잔칫날 / 2장. 만남 / 3장. 사랑 / 4장. 내소사
〈제2막〉 1장. 이별 / 2장. 전란 / 3장. 기다림 / 4장. 님을 찾아서
〈제3막〉 1장. 격로 바닷가 / 2장. 새 인연 / 3장. 천리별곡 / 4장. 이화우 흠날릴제
에필로그

- 일 시 : 3. 31(목) 19시30분
- 장 소 : 고창문화의전당
- 관람료 : 무료
- 예매방법
 ● 사전예매 3.16(수) ~ 3.22(화)
 ● 현장예매 3.24(목) ~ 3.31(목)
- 주 회 : 전북도립국악원, 고창군
- 문 의 : 560-8041~2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홍보영상(UCC) 공모전

고창군의 대표관광지인 고창읍성을 널리 홍보하고, 판소리의 발상지 및 본향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홍보영상’ 공모전에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바랍니다.

2016. 3. 1(화) ~ 10. 31(월) 18:00 (당일 소인날인분까지 인정)

- 공모주제 : 고창읍성과 판소리, 과거와 미래의 연결
 -고창읍성의 사계와 답성놀이 등 읍성의 아름다운 경관과 가치 재조명
 -판소리 발상지로서 우리군의 위상정립 및 판소리 대중화
 -고창읍성과 판소리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 강조
- 공모자격 : 개인 및 단체 누구나(단, 단체의 경우 1개 팀당 4명 이내 인원으로 구성)
- 주최 : 고창군
- 문의처 : 고창군 문화관광과 관광산업팀 (063-560-2449, 2450)

응모 요령

- 작품길이 : 1분 30초 이상 ~ 5분 이하
- 작품형태 : ENG카메라, 캠코더, 동영상 카메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동영상, 제작물
- 파일형식 : 640*480픽셀 이상, 압축 avi로, 용량 200MB이하

○응모방법 :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 문화관광과/UCC공모 파일 업로드 후 관련자료 우편제출

-우편제출물 :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본인작품 확인서, 응모영상(고화질 원본 avi파일 또는 MP4파일 1부를 CD 또는 DVD, USB메체에 저장하여 제출)

※참가 신청서 등의 양식은 고창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접수처 : 우)56428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산업팀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홍보영상 공모전 담당자

○출품수 : 개인당 3점 이내(여러 작품 출품시 작품소개서는 각각 작성)